

불교 최대의 敵은 윤리적 타협주의 가치의 저항 토하는 살아있는 活句

休庵의 「한국불교의 새얼굴」을 읽고

계급(카스트)의 타파와 淨土사회의 실현을 몸소 실천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의 진리가 이 땅에 전해온 지 1천6백여 년. 방대한 불교사상의 갈피마다 일관되게 흐르는 진리의 알음알이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느 만큼 적확하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던가.

많은 이들이 고개를 도리질하며 불교는 낡았다고 한다.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것은 불타의 참다운 가르침이 온전히 실천되지 못하고 불교가 민족의 과제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때문이라.

休庵스님이 펴낸 「한국불교의 새얼굴」(대원정사)은 이러한 불교의 침체상을 근원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에서 진단하여 불교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隨想集으로서,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려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휴암은 현재 宗團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의 근본원인을 단순한 권력·재산다툼 탓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못된다면서, 이는 불교가 일찌기 山中으로 밀려난 이후 일제하의 변질과정을 거쳐 시대착오적인 '호국불교' '얕은배이불교'가 역사적으로 체질화된 탓이라 본다. 이것이 개인의 祈福의인 구제에는 도움이 되었을 망정 '가치적으로 세계를 구제하는 역사'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의 불교가 타파해야 할 최대의 적은 윤리적 타협주의라고 설파한다. 불교계의 누적된 폐습이 척결되지 않고서는, 선과 악의 단호한 준별없이, 그리고 '부정의 인간학' 없이는 진정한 중생구제란 口頭禪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껏 교양수준에서 인간적 수양을

달하는 정도'로는 '세속의 모든 벗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고 못박는다.

불교개혁의 소리는 구호 자체로서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그리고 젊은 佛子·제가신도들을 중심으로 근래 낡은 껍질을 벗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휴암은 한국불교의 문제가 단지 제도 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승가의 교육부재, 나아가 가치관의 혼란에 있음을 날카로운 禪의 언어로써 밝혀낸다.

이 책은 과거의 강연·설법과 지상에 게재된 글을 모은 것이므로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오랜 수행에 침잠했던 탓에 문제를 사변적·관념적으로 보는 한계가 발견된다. 한국불교의 활로를 '진정한 가치정신의 확립'에서 구함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지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철학적인 차원으로 수렴시키는 관념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끓어 죽을 각오'로써 '가치의 저항'을 토하는 그의 法文은 분명 살아있는 活句라 하겠다. 그리고 철학의 차원에서 제기된 그의 佛敎維新論을 현실의 삶 속에서 六部大衆 공동의 실천으로써 확보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돌려진 책무임을 깨닫게 된다.

이윤수

서울 종로구 낙원동 54-1

日帝下 지식인들의 對 권력 저항 소설로 본 일본 知識人史

松本清張의 「小説 東京帝國大學」을 읽고

일본의 대표적인 추리작가 마쓰모토 세이초 우(松本清張)의 역작 「小説 東京帝國大學」은, 메이지(明治) 후반기 이후 제국주의 상부구조와 東京帝大 중심의 지식인집단 간에 빚어진 갈등과 저항의 이면을 파헤친 역사 추리소설이다.

그런 만큼 작가는 200자 원고지 2천매를 크게 웃도는 방대한 내용을 철저한 史實고증으로 시종일관 크게 두가지 측면을 부각·강조하고 있다. 그 하나는 국가주의의 명분을 내세워 '학문·사상·언론의 자유'를 압살한 상부구조의 폭력성으로, 이는 '일본의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哲學館(현 東洋大學) 사건'을 비롯, 이후의 國是논쟁, 동경폭동, 역사 교과서 파동 등의 진상규명을 통해 여지없이 폭로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폭력성에 직면한 지식인들의 대응양식과 그 파행성으로, 이 또한 작가는 세 가지 유형의 實名인물들의 묘사로 세밀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권력 심층부와 유착, 자신의 기득권을 확대재생산해 나가는 유형의 지식인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帝國史觀의 일체화(identification)로 진보적 역사관 또는 사회적 소멸의식을 결연코 부정하는 확신범 부류에 속한다. 두번째 유형은 서구 근대사회사상의 영향을 받아 나름의 진보적 이념을 전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유지적 속성과 의식의 박약성에 함몰, 결국은 제국주의 체제 내에 편입되어 노예의 길을 걷고 마는 이른바 기회주의 세력이다. 마지막은 '일본 사회주의 운동 1세대'로 후일 기록되는 지식인 일파로, 이들은 자기 이념의 실현을 위해 상부구조와 맞선 체비타협 투쟁노선을 견지하였다는 점에서 앞의

두 유형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도 지식인 중심주의적 성향과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비조직적·비대중적 투쟁만을 전개, 마침내 비극적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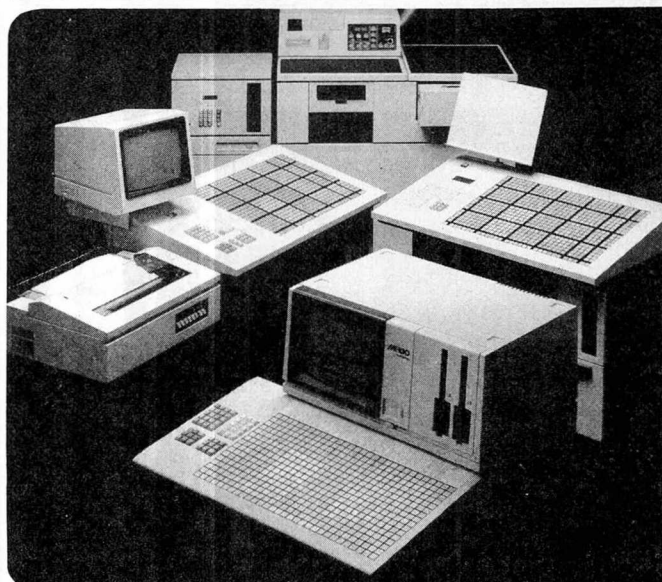
여기서 작가는 이 세가지 유형을 놓고서 어느 일방만을 미화·윤색하여 독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우를 물론 범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후의 일본 역사가 제국주의 상부구조의 고착화, 나아가서는 식민지 침탈로 직결되었음을 작가 자신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유형도 진정한 의미의 '지식인像'이 될 수 없음을 능히 꿰뚫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단순한 史實나열과 인물유형 묘사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지식인의 참회록('哲學館사건'의 연루자로서 기회주의적 삶을 영위해온 한 중등 교원의 편지)과 저자후기를 통해 작가 자신은 분명 하나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역사적 체험과 각성을 거친 지식인은 기회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인간성 자체에 대한 긍정이 배어나고 있다.

다만 이 작품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식인 집단 자체의 문제에만 집착하여 사회구성의 총체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과, 문학 내적인 점에서 소설의 자기완결적 구조, 인물의 전형성 창출을 등한시, 너무 많은 사건과 인물을 묘사하려는 과욕을 부림으로써 오히려 리얼리티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염재웅

시대평론 대표,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161



電算寫植界의 先驅者!

- 世界電算寫植의 最尖端, 모리사와 라이노시스템完備
- 他社가 追從할 수 없는 多様な 書体保有
- 斬新한 施設과 技術로, 入力에서 出力, 日産 1,500p 組版
- LASER PRINTER에 의한 가장 便利한 校正
- 革新的 FILM (positive) 直接出力에 의한 製版

創業35年! 編輯, 組版, 製版, 印刷 綜合印刷業으로서 恒常 顧客에게 精誠을 다하는

正文社

서울特別市 中區 草洞 50番地 (스카라劇場 옆)

☎ 266-4555, 272-1890, 265-9554, 267-1972